

## 5강 질그릇 안의 보배(고후 4:7~18)

읽을 말씀: 고후 4:7~12

### 오늘의 포인트

- 복음의 역설을 이해하기
-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기

### 바울 사도의 가슴 속 깊은 이야기--그 영광이 질그릇에 담겨있다!(4:7~15)

- 본래 질그릇인 우리가 보배를 소유하게 되었다.
-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소유한 보배로 결정된다.
- 감사함이 그치지 않을 이유--자신이 질그릇임을 깊이 지속적으로 인식하라.

### 어울릴 수 없는 조화, 믿어지지 않는 진실(4:7)

(4:7)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질그릇’은 도자기가 아니다.
  -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존재인 인간을 묘사다(창 2:7; 3:19).
  - 가치가 없는 그릇
- 보배 =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4:6)
  -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바울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질그릇에 불과한 사람이었다.
- 복음의 역설
  - 질그릇 같은 우리 운명과 존재, 신분을 바꾸어 놓은 것은 질그릇인 우리가 소유한 보배 때문이다.

### “나는 질그릇이다”(4:7~12).

- 바울 사도의 고백:
  - “나는 질그릇이다.”
  - “나는 철인도, 수퍼맨도 아니다.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며, 깨어지기 쉽고 약한 질그릇이다.”
  - “나는 별 것 아니지만, 내 안에 담겨진 보배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
- 자신과 자신의 직분을 구별하라.
- 복음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 그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개선행진에 포로로 끼워진 것이 감사할 뿐이고, 우리 자신이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보배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주시는 것이 감사할 뿐이다.
- 질그릇에 보배가 있다고 질그릇이 보배가 되지 않는다.
- 성화는 질그릇에 아름다운 칠을 해서 도자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다.

- 성화는 우리의 약함을 감추고 강함 처럼 드러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 복음의 역설은 약함 안에 강함이 드러나듯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진 것이다.
- 질그릇은 약하고 죽어가고 있으며 고난 가운데 사는 존재인 인간을 잘 보여준다.

## 4종의 어려움(8~9)

(4:8~9)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 4종의 어려움은 우리가 질그릇임을 증명한다.
- 4종의 ‘아니하며’란 부분은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않는다** = “We are squeezed but not squashed.” (우리는 사방으로 짜내듯이 눌리지만 으깨어지지 않는다) 메릴 테니(Merrill Tenney)의 번역
-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 “bewildered but not befuddled.” (당황하고 답답해하는 일은 있지만, 정신을 잃지는 않는다) 메릴 테니의 번역
-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않는다** --사도는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를 절대적으로 확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 “knocked down, but knocked out.” (다운은 되지만, KO되지는 않는다) 메릴 테니의 번역
  - 루스드라에서 바울 사도가 겪은 고난
  - (행 14:19~20)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총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
- 그리스도인의 질그릇 정체성 인식은 그 자체가 위로다.
-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 질그릇은 깨져도 된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진다”(4:10)

(4:10)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짚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 죽음이라는 단회적 사건과 상태를 가리키지 않고, ‘죽음의 과정’을 의미한다.
- 바울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고난, 바울의 죽음의 과정과 그리스도의 죽음의 과정이 깊이 연합되어 있다.

(행 9:4)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 바울과 그리스도의 연합
- 바울 사도를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으신다.

• 바울 사도의 소원: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이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빌 3:10)

(3:10)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 인생에 일어나는 고난과 죽음은 성화의 방편이다.

-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음은 너희를 위한 것이다(4:12).  
(4:12)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 십자가의 원리--너희가 살도록 내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다.
- 바울은 고난을 대적하기 보다 고난을 끌어안고 가려고 한다. 고난은 보배를 드러내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 마지막에는 다 밝혀질 것이다(4:13~15).

(4:14~15)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 바울 사도의 확신

- 고린도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부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행하고 있다.
- 바울 사도의 모든 일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며 그날에 그들이 다 바울의 사역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바울 사도처럼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살아야 한다.

## 하나님의 의도

###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4:7).

- 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도자기가 아닌 질그릇에 담아두기를 기뻐하셨는가?  
(4:7b)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 사도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을 구별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을 도자기로 착각하지 않도록,
- 보는 이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 어거스틴의 일화

“당신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어거스틴의 대답: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조그만 자가 땅에 어디 있나 보자’.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찾았다. 그 친구는 결코 자랑하지 못할 게다. 그는 자기의 미천함 때문에 내가 자기를 사용하는줄 알게 될테니까.’”

- 비극은 질그릇이 자신을 도자기로 착각하는 것이다.

##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4:15).

(4:15)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 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영광에 그토록 집착하는가?

-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았다(고후 4:6).
-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광을 봄으로써 자신이 주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다(고후 3:18).

-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는다.

## 낙심하지 않는다!!!(4:1,16~18)

### 낙심할만한 상황

-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상황 (4:8~9)

### 낙심하지 않는 근거

- 질그릇은 시간이 흐를수록 금이 가고 깨어지고 부서지겠지만, 부서질수록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 부서질수록 부서진 틈새로 보배의 광채가 밖으로 찬연하게 비추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 질그릇은 시간이 흐르면 용도를 다하지만, 결국 새 것,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될 것이다.
- 질그릇이 부서지는 것 때문에, 늙어가는 것 때문에, 몸이 병약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생이 너무 심한 것 때문에 바울 사도는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날로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다.

### 질그릇과 보배를 구별해라(4:16).

(4: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 질그릇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있다는 것이 놀랍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 능력의 심히 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는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 환난 대 영광(4:17).

(4:17)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 환난은 잠깐이고 가볍지만, 영광은 영원하고 무겁다.

### 환난의 역할

- 우리가 가진 환난에도 불구하고, 고통에도 불구하고 암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장애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다.
- 우리가 겪는 환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암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장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드러나게 되며,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향하여 비추어질 것이다.

### 복음의 목적

- 복음의 목적은 편안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더 깊이 신뢰하는 것이다.
- 복음의 목적은 그리스도와 깊은 사랑에 빠지고 그분의 영광을 사모한 나머지 내 고난이 그분의 영광을 비출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고난을 견디는 것이다.
- 복음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선택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인생을 건다(4:18)

(4:18)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 사도는 자기의 눈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에 고정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육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보배에 자신의 눈을 고정시키고 살기로 했다.

### 오늘의 적용

- 당신이 질그릇임을 알라. 질그릇과 그안에 담긴 보배를 구별하라. 질그릇에 덧칠을 하고 기름을 바르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질그릇은 시간이 다하면 부서지고 버려진다. 질그릇의 영광은 속에 있는 보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 낙심하지 말라. 질그릇과 보배를 구별하라.
- 보이지 않는 영원함을 추구하며 살라.

